

월간 실적보고

2018.03

Summary of 2018 Mar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0.1%** 성장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8.8% YoY** 증가

- 패키지 **10.5%** / 티켓 **6.1%** YOY 증가

(14.5만명 / 8.8만명)

▶ 패키지 **ASP** 소폭 상승

3.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(YoY)

- 일본 **+19.7%** 동남아 **16.9%**
- 중국 **-0.7%** 남태 **-2.2%** 유럽 **-4.1%** 미주 **-12.8%**

3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0.1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8.8%, 송객인원 23.3만명

패키지 인원 성장률 10.5%, 14.5만명. 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 회복. 2월을 저점으로 반등. 특히, 3월은 2월 보다 심한 역기저였음에도, 10%대 성장 기록. (2017년 2월 23%, 2017년 3월 32% YoY)
다소 둔화되었던 해외여행수요도 반등한 것으로 예상. 3월 ASP YoY 소폭 증가.

티켓 인원 성장률 6.1%, 8.8만명. 지난 2월 감소했던 FIT 수요도 3월부터 반등.

3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8	145,124	88,327	233,451
2017	131,280	83,250	214,530
YOY	10.5%	6.1%	8.8%

패키지 YoY : 2018년 1월 20.0% → 2018년 2월 -8.0% → 2018년 3월 10.5%

티켓 YoY : 2018년 1월 22.2% → 2018년 2월 -3.6% → 2018년 3월 6.1%

총송객 YoY : 2018년 1월 20.9% → 2018년 2월 -6.2% → 2018년 3월 8.8%

지역별 성장 (YoY)

일본 +19.7% 동남아 16.9% 중국 -0.7% 남태 -2.2% 유럽 -4.1% 미주 -12.8%

일본 +19.7%, 2017년 11월 부터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성 지속. 근거리 중 최선호 여행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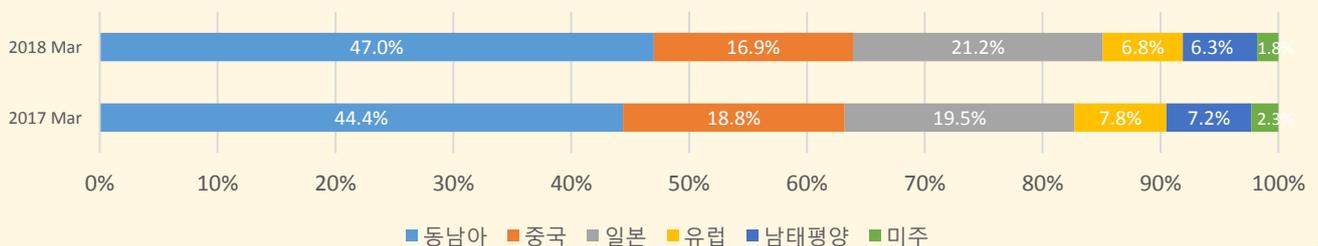
동남아 16.9%, 일본 못지않은 성장. 전년동월 고성장으로 인한 역기저 고려 시 매우 양호. (전년 YoY 63%)

중국 -0.7%, 2017년 중 최저 -60%까지 역성장 했었지만 이번 3월 전년 수준 회복. (2017년 3월 YoY 10%)

남태평양 -2.2%, 유럽 -4.1%, 미주 -12.8%, 전년의 높은 성장성(각각 32%,97%, 34%)과 예약/출발 시점의 시차가 큰 특성 때문에 근거리 여행지 보다 동계 올림픽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다소 더딤.

2월과 동일하게 예약/출발의 시차가 짧은 일본, 동남아 등 근거리 지역이 성장 주도. 중국은 본격적 회복 국면 진입. 장거리 지역은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8년 4월	18년 5월	18년 6월
증감률	15.1	9.8	4.2

* 2018.03.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/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(Month to date)

18년 4월, 5월 은 **한달전에 발표한 예약률 보다 소폭 증가**. 2월 평창 올림픽 이슈로 지연된 수요가 천천히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. 예약률 증가폭은 기대보다 다소 더딘 상황. 원인은 2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인 것과 17년 동일시점 기준 4월~6월 예약률이 각각 18%, 28% 35%로 역기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. 하지만, 예약률이 전월발표 시점보다 오른 것은 긍정적. 예약률은 해당월이 가까워 질 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는데 **18년 2분기는 이와 반대로 예약률이 올라가는 모습**. 예약과 출발의 시차가 작은 근거리 지역의 성장으로 2분기 예약률 상향 가능성. 2분기 성장 주도 지역은 근거리 전 지역(중국, 일본, 동남아)과 장거리의 유럽이 될 것으로 예상.